

## 1.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

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 
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바로 등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.  
필수 성경공부인 '길찾수(길을 찾아 만난 예수)' 성경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.



## 2. 유형선 목사의 아침묵상

매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업로드 됩니다.

## 3. 사순절 네번째 주일

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40일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 주님과  
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.

## 4. 종려주일 & 부활주일

- 4월 2일 (종려주일)
- 4월 3일-8일 (고난주간)
- 4월 9일 (부활주일)

### 지난 주 (3/12) 헌금 통계

선교구제 헌금란이 없는 이유는 매주 전체 헌금에서 5%를 선교구제비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.  
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매월 첫째 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.

총 액

US\$980.00



예수님을 머리에 사람을 가슴에

\*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

다함께

\*찬양과경배 Songs of Praise

다함께

기도 Prayer

서경열

\*주님의기도 Lord's Prayer

다함께

\*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

고전 15:25-28

다함께

말씀선포 Sermon

멸망 받을 원수

유형선

\*찬양 Praise

다함께

\*봉헌&축도 Offering&Benediction

유형선

\*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 
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.

### 주일대표기도

3월 26일

4월 2일(종려주일)

최은숙

윤한진

### 예배시간안내

주일예배

오후 2시

아침묵상

(화-금) 매일 오전 6시 (Youtube)

### 공동기도제목

1. 말씀 안에서 -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
2. 나라와 민족 -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
3. 교회와 선교 -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

## 나는 신이다 : 신이 배신한 사람들

최근 넷플릭스를 통해서 방영된 한 다큐 프로그램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JMS라는 사이버 이단의 실체를 고발하고 있는 이 다큐는 사실 새로운 내용이 라기 보다 기독교 안에서 이미 30년전부터 JMS라는 이단의 위험성과 그 사악 성에 대해서 지적해 왔던 것을 다시 정리한 내용들입니다.

이단이라는 그룹은 성경에도 계속 등장합니다.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추구하는 거짓 예언자들이며, 종교 사기꾼들입니다. 그 들에게 넘어가지 않으려면 분명한 성경적 기준과 분별력을 갖춰야 합니다.

이단을 구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.

1. 이단이 전부 틀린 말을 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. 그러나 그 끝이 어디를 향 하고 있는가를 유심히 들어 보아야 합니다. 성경의 결론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나야 합니다. 그러나 이단들은 항상 그 끝에서 교주가 등장하 고 교주를 추앙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.
2. 거룩함이 들어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. 교회는 거룩한 모임입니다. 예 수를 믿는다는 교회 안에서 성적인 범죄, 물질의 탐욕이 나타난다면 그것 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.

저는 이러한 이단들의 출현이 전혀 놀랍지가 않습니다. 이러한 이단들은 주님 의 재림이 가까워질 수록 더욱 활개를 칠 것이며 주님의 양들을 집어 삼키기 위해서 발악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.

그러나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과연 오늘날 정통교회들에게는 그 책임이 없는 가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것은 정통교회들이 성도들의 갈급한 영혼과 성경에 대한 궁금중에 대해서 제대로 풀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.

이러한 비극이 우리 삶에 반복되지 않으려면 교회들은 성경중심적인 목회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. 그리고 성도들은 분명한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분별력 을 길러야 하고 성령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.

마지막으로 “다빈치 코드”라는 소설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다큐 한편으로 인해 건강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마저 회의를 느끼고 있는 신자들이 있다면 자신의 신앙이 바르게 뿌리 내려져 있는지도 확인해 볼 일입니다.